

시페퍼스, 시마무라로 달라졌다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아시아쿼터 시마무라가 팀의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해결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고 있는 것.

AI페퍼스는 11일 경기 전 기준 4승 2패 승점 10점으로 리그 2위에 위치했다. 6경기를 소화하며 1라운드 일정을 모두 마친 AI페퍼스의 역대 최고 순위다.

특히 이번 1라운드에서 AI페퍼스는 현대건설, 흥국생명, GS칼텍스를 연파하며 올 시즌 첫 3연승이자 구단 역대 최대 연승 타이틀 기록하기도 했다.

2021~2022시즌부터 V리그에 합류한 AI페퍼스는 그동안 만년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2010년부터 일본 V리그 NEC RED Rockets 소속으로 활약한 베테랑이다.

그의 영입 당시 장소연 AI페퍼스 감독은 “국제 경합이 풍부한 노련한 베테랑 선수로, 미들에서 블로킹과 공격뿐 아니라 세심한 플레이에서도 팀에 큰 힘이 돼줄 것으로 기대해 시마무라 선수를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 감독의 기대에 걸맞게 시마무라는 공격과 수비 전반에 걸쳐 활약하고 있다.

개막전 경기인 도로공사전에서 3개의 블로킹을 포함해 19득점을 올린 시마무라는 IBK기업은행

50회를 시도하고 있다. 다른 선수들보다 압도적인 시도에도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며 활약하고 있는 셈이다.

상대 선수들이 시마무라를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팀 전체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다. 중앙이 풀어지니 팀의 날개 또한 자연스레 활약하게 되는 것이다. 공격로가 다양해지면서 AI페퍼스는 이전과는 달



86득점으로 팀 내 ‘최다’…리그 10위 올라

블로킹 세트당 0.74 리그 3위…상승세 견인

시즌 역시 창단 최초 두자릿수 승수(11승) 등을 달성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지만, 순위를 바꾸진 못했다.

그러나 올 시즌은 초반부터 분위기가 다르다.

평소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것과는 달리 매 경기 집중력이 돋보였고, 선수단의 코트 내 움직임 역시 더욱 활발해졌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올 시즌 팀에 새로 합류한 미들블로커 시마무라가 있다.

AI페퍼스는 당초 올 시즌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난 시즌 GS칼텍스에서 뛰었던 스테파니 와일러를 지명했다. 하지만 그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출전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교체를 결정했다.

와일러의 대체 선수로 합류한 건 바로 시마무라. 그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20 도쿄 올림픽에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2022 항저우

전 14득점, 현대건설전 13득점, 흥국생명전 13득점 등을 기록했다. 4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을 잡아준 그는

GS칼텍스전에서는 블로킹 7개를 뽑아내며 총 18득점으로 팀의 3연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정관장전에서는 9득점에 그쳤으나, 팀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로가 단순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수한 활약이었다.

실제 그의 기록을 보면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에 안착해 있다. 6경기에서 86득점(공격성공률 47.86%)으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졌고, 이 부문 리그 10위를 달리고 있다.

또 블로킹 3위(세트당 평균 0.74), 속공 2위(성공률 58.33%), 이동공격 4위(성공률 46.00%)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이동공격의 경우 사실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주아(시도 26회·성공률 57.69%)의 2배에 가까운

리 초반부터 착실하게 승점을 착실히 쌓아가는 중이다.

시마무라가 꾸준한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끄는 해결사로 우뚝 설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



백기태호, U-17 월드컵 무패로 조별리그 통과

코트디부아르에 3-1 승리…32강행 올라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대표팀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에서 무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하고 32강에 올랐다.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아스파이아존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코트디부아르에 3-1로 이겼다.

이로써 멕시코를 2-1로 누르고 스위스와 0-0으로 비겼던 한국은 2승 1무(승점 7·5득점 2실점)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같은 시각 멕시코를 역시 3-1로 누른 스위스(2승 1무·7득점 2실점)와 승점은 같지만, 골 득실에서 밀려 조 2위로 32강전에 나서게 됐다.

멕시코(1승 2패·승점 3)가 조 3위로 32강행을 기다리게 됐고, 3전 전패(승점 0)로 조 최하위에 머문 코트디부아르는 대회를 마감했다.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경쟁하는 이번 대회 조별

리그에선 각 조 1, 2위, 그리고 3위 중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오른다.

현재시간으로 오는 14일과 15일에 나뉘어 열리는 32강 토너먼트 대진은 각 조의 모든 순위가 가려진 뒤 확정된다.

우리나라는 코트디부아르전에 앞서 조별리그를 모두 마친 A~D조의 3위 팀들보다 승점이 앞서 이미 32강 진출은 확정된 상황이었다.

한국이 FIFA U-17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한 것은 24개 팀이 참가해 16강 토너먼트 체제로 열린 2019년 브라질 대회 이후 6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1년 대회가 취소되고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직전 대회에서는 3전 전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한국은 조 3위로라도 32강에 오르려면 승리가 꼭 필요했던 코트디부아르를 맞아 고전했다.

하지만 전반 26분 임예찬(대건고)으로부터 공을 이어 받은 김지성(매탄고)이 상대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기습

적인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크로스로 보일 듯한 거리와 각도였는데 공이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전반전 한국의 유일한 유효슈팅이었다. 한국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전반 35분 알산 투레에게 동점 골을 내줬다.

전반을 1-1로 마무리한 한국은 후반 시작하며 오히려(광양제철고)을 빼고 정현웅(오산고)을 투입했는데 교체 카드가 3분 만에 효과를 냈다.

왼쪽으로 침투한 김도연(충남기계고공)에게 공을 주고 돌려받은 정현웅이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오른발슛으로 결승 골을 터트렸다.

후반 42분에는 이용현(울산 현대고)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쐐기를 박았다.

앞서 후반 36분 김지성과 교체로 투입된 김은성(대동세무고)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쿠아디오 코파의 발에 걸려 넘어진 뒤 백기태 감독이 비디오판독을 요청해 페널티킥을 골여냈다.

연합뉴스

‘광주 광산구청장배 수중·핀수영 대회’ 성료

생활체육동호인 등 80명 참석…4개 종목 진행

광주 광산구 수중·핀수영협회(회장 민기홍)는 지난 9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2025 광산구청장배 수중·핀수영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이병훈 전 국회의원, 전경희 광산구 문화교육국장과 배영모 광산구 체육회장, 생활체육동호회원 80여명이 참가했다.

33수중달리기, 50m토끼핀수영, 줄다리기(5인), 스노클링계주(남녀혼성 4인) 등 개인전 2종목, 단체전 2종목 총 4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참가선수들은 해마다 개최하는 수중·핀수영대회에 높은 만족감과 지속적인 대회개최를 희망했다. 주요 수상자로는 33수중달리기 1위 김영래, 50m토끼핀수영 1위 강조민지, 줄다리기 1위 김영남·오현태·이화중·김민주·김경욱, 스노클링계주 1등 박미연·이병주·박경모·김도현 씨 등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5 광산구청장배 수중·핀수영대회’가 지난 9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성황리 열렸다.



1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아스파이아존에서 열린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 F조 3차전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에서 이용현이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코리아컵 우승 기원 응원버스 운영



프로축구 광주FC가 창단 첫 코리아컵 우승을 기원하는 서울행 응원 버스를 운영한다.

11일 광주FC에 따르면 다음 달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와의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팬들을 위해 광주~서울 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이번 응원버스는 창단 첫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와 구단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팬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선수단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원버스는 광주 출발에서 서울 응원, 경기 종료 후 광주 귀가까지 안전하게 책임진다. 응원버스는 광주 서포터즈석 티켓 예매자 전용으로 운영되며, 결승전 티켓을 사전에 예매한 팬만 탑승이 가능하다.

응원버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구단 공식 홈페이지 ‘원정버스 신청’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